

광주·전남 19개 시군 대설특보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이어지고, 일부 도로와 뱃길, 항공편이 통제되고 있다.

1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곡성 12.0cm, 담양 10.5cm, 광주 10.3cm, 화순 10.0cm, 장성 8.1cm, 순천 7.5cm, 영광 7.5cm, 함평 7.1cm, 강진 5.2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광주와 무안, 장흥, 화순, 나주, 진도, 신안(흑산면 제외), 목포, 영광, 함평, 영암, 해남, 강진, 순천, 장성, 구례, 곡성, 담양, 보성, 완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거문도·초도, 무안, 진도, 신안(흑산면 제외), 목포, 영광, 함평, 완도, 해남, 여수, 고흥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

사고 속출·도로와 뱃길, 항공편 통제

“기온 매우 낮아 동파·건강관리 유의”

리면서 교통도 통제되고 있다. 여수에서 제주, 광주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 등 6편이 결항했다.

목포권 21항로 44척(목포~흥도 등), 여수권 7항로 8척(여수~거문도 등), 완도권 9항로 14척(완도~여서 등) 등 모두 55항로 92척 중 37항로 66척 배편의 운항이 통제됐다.

무등산 25개, 지리산 13개, 월출산 10개, 내장산 5개 등 국립공원 탐방로 53개소도 입산이 통제되고 있다.

곡성 지방도 840호선(오곡 구성

~죽곡 신공 8.2km)이 폭설에 막혔다.

전날부터 내린 눈 때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5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선 오전 4시42분께 순천시 승주읍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It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아 2명이 다쳤다.

지난 9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육교 인근 장성 방면 도로에서는 택시 등 6대가 연

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후 6시44분께 화순군 이양면 이양교차로 300m 전 편도 2차선(화순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18대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5명이 다쳤다.

이 외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5~15cm,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기온도 매우 낮아 동파와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해안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남규 기자

빛 갯노라 400만원 횡령 공기업 간부 입건

나주경찰서는 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0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채 1건이 뒤늦게 발견돼 변제를 요구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KCA 모 지역 사업소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리직원 B씨에게 출장비 9만원을 인출해 간다고 해놓고 이보다 많은 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리직원 B씨가 추가이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자진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삼당분부에 신고했다.

KCA 감사팀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빼돌린 400만원을 개인계좌를 갖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날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CA 징계 규정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음수수, 횡령·유용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1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달미

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조직원을 버리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추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7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강도(36)씨와 사이트 운영자 고모(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모(27)씨 등 29명을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서버를 두고 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17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사이트 전문가 고씨 등을 고용해 ‘사다리타기·홀짝 맞추기 게임’ 등 정식 등록된 인터넷 게임을 다운받아 현금을 걸 수 있도록 개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 조직폭력배로 이뤄진 이들은 인출책, 통장모집책,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와 중계사이트, 채팅창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개설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들은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했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통장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허부조직원들은 사이트운영자 등 상부 조직원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8)씨 등 46명을 붙잡았으며 김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강씨 등은 김씨 등이 붙잡히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전국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지만 모두 탐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봉우 기자

음주단속 의경 차로 치고 도주 3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음주측정하던 정모(22)수경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이다.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은 정 수경은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측정기가 울리자마자 속도를 높여 서구 농성동 골목길 등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소주 반 병을 마셨다. 단속에 적발될까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의경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인호 기자

장흥서 AI... ‘제이디팜’

농가 24시간 이동중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남 7개 시·군과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는 이날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000여 곳이다. 장흥군·강진군·순천시·보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내 가금농가 3356곳, 도축장 1곳, 사료공장 8곳, 차량 1980대 등이다.

제이디팜에 소속된 가금농가는 94곳(전남 67곳, 전북 25곳, 충남·경남 각 1곳)이다. 도축장은 전남 나주 1곳, 부화장은 전남 2곳과 충남 1곳, 차량은 26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도 전파했다.

제이디팜 계열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뉴스



동장군 기승에 고드름 주렁주렁 중부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전국적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경기 수원 상광교동의 한 농가에서 시민들이 주렁주렁 맺힌 고드름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 공모’ 탈락자 이의제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인사가 경제부시장 공모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시 경제부시장 공모 면접자인 정숙경 광주대 외래교수는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창현 시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경제부시장 내정과 임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 투자로 유도되는데, 그동안 기업들이 광주에 대한 투자를 꺼린 것은 노사분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런데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노조위원장 출신

5급 특보를 1급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측근의 경력 쌓아주기’나 ‘인사권 남용’의 다른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광주시의 경제 관련 주요 정책업무와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업무를 보는 정무부시장은 비선조직이 아니라 공적 행정기구다”며 “행정 체계를 무시하는 인사가 가능한 것은 능력보다 내사담 먼저라는 의식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이 아니라 광주가 가진 자원과 물자 역량을 활용하면서 공공복지의 확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박 부시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회장과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일자리정책특별보좌관 등 노동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경제부시장 직을 수행할 적임자다”며 “특히 오랜 노조 활동을 통해 맺어진 노동계 인맥을 바탕으로 향후 노사민정 대화협과 이를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민이 농지매입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민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